

# 오직 믿고 맡길 곳은 근본밖에 없어

## 19면에서 계속

마음이 조금씩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를 되게 하고 안 되게도 하는 본래 그 자리를 믿으시고 일체를 거기에 맡기는 작업을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내생에 만나 함께 하고 싶는데

**문** 저는 불교에 관심이 많은 주부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책도 읽고 나름대로 마음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잘 통하고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생에서는 이를 수 없는 처지이지만 다음 생을 믿고 꼭 그 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주인공을 믿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정말 그분하고 다시 만나서 한번 멋지게 살아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그분을 다음 생에 꼭 만날 수 있는지요.

**답**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거든 놔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했습니다. 진짜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육신을 붙들고 함께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차원을 높여서 마음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생에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 생에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르면서 만나기만 한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생에 인연지은 지금의 생활을 내팽개치고 다음 생만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인연이 됐던 얘기지만, 어느 부부가 참 정답게 살았더라. 서로를 아껴 주며 정답게 살다가 한 사람이 일찍 죽었더라. 한쪽이 일찍 죽으니 남은 사람은 그럴 것 같아서 항상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간직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부인을 따라갔는데 그 부인은 벌써 남편을 찾아서 이 세상으로 나왔더라. 그랬으니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다시 또 영원을 해서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은 또 들어오게 됐죠. 맞추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중에는 둘다 둘다가, 즉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스쳐가지만 하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더라. 그렇게 만나보기를 영원했던 시간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는지 모릅니다. 또 만났다는 허대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나이가 맞지 않으면 안되죠. 10년이 위일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위일 수도 있는데, 어른하고 애하고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추려고 남편이 나오니까 또 뒤쫓아

나오고 뒤쫓아 나와도 또 어련애더랍니다. 그래서 허덕지덕 하며 살다 닦고 닦아서 다시 나왔는데, 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종의 집 딸로 나오고 하나는 양반의 집 아들로 나왔으니 할 수 없이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밟았답니다.

나는 인연이 여기서 벗어나서 저 양반 선비하고 살아야 하는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얘기하니 그렇지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항상 인연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연히 그렇게 인연 따라서 도는 것이죠. 인연 따라서 친구들이 한데 모인 거고, 자기 차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상임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정치인들이 한데 모이는 겁니다. 은은 은대로, 굵은 굵대로 그 차원에 따라서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으로까지 살게 됐고 그 선비는 주인으로 살다 일찍 죽으니가 부처님 앞에 가서 영원을 하면서, 그분 자신들의 밑에 가서 그렇게 영원을 하면서 애를 썼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똑같은 문벌과 똑같은 양반의 집에 태어나서 둘이 재마있게 살았다 합니다.

그렇듯이 한번 만나서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이 그다지도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서로 영원하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부부 만나서 살다 보니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 부부라는 것이 잠시동안 친구들같이 만나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이년까지 영원을 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 앞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그때서야 알고서 40살이 가까웠는데도 입산을 했습니다.

스님이 돼서야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내 안에 내 남이 계시고 내 남 안에 밝음이 있으니 이것이 칠성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시다. 말하자면 한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돌고 돌면서 해왔던 인연에 의한. 자기 마음의 깨우침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 항상 배로써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허망한 사랑을 붙들고 있지 말고, 이번 생을 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싶어하는 감정들을 들고나게 하는 그 근본을 찾아서 다 녹여버리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몇 생을 그 집착 때문에 흘러 돌아야 할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 애달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남은 생을 살아가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연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터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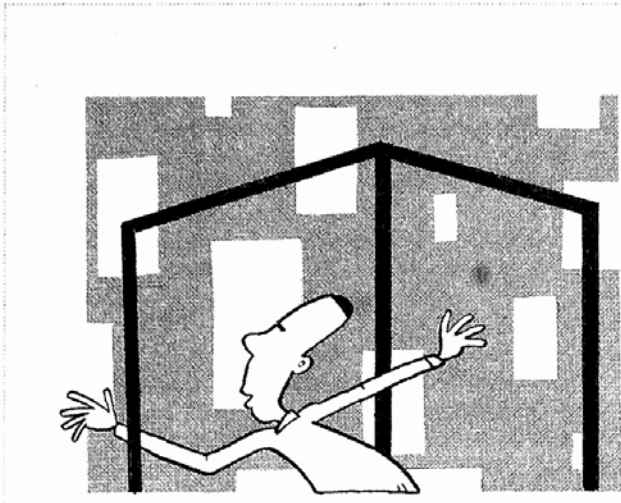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나'가 있으면 한 발자국도 뻐수 없어

### 자성불, 고정됨 없이空해서 돌아가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도깨비 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의 감정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이 모습 저 모습을 지니면서 꼭짓기 하던 습이 남아서 서로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인간의 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차원마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습을 지니고 세세생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진실한 의리와 도의, 깊고 깊은 참다운 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주인공, 좋아하는 이 감정을 당신으로부터 나왔으니 당신만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지극하게 믿고 맡기세요. 그 길만이 서로의 마음을 집착으로 붙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어!' 하고 진실하게 믿고 맡기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학업 대신 장사해 보고 싶어요

**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능시험이니 대학이니 하고 인생을 걸고 그것에 실패하면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양 서로를 다그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회가 다 학벌이나 간판 위주로만 흐르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해서 일찌감치 그만두고 장사를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걱정을 하세요. 스님 제 생각이 정말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스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너라는 모습은 엄마 아빠의 정자란 자로 인해서 그 모습이 형성됐어. 그런데 태어날 때 네가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인신이 돼서 우리가 모두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과거 너를, 과거 너라는 게 너의 과거 원소라는 말이야. 원소를 말하는 거지, 너의 그 원소 자체를 에너지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그 원소에 모든 걸 맡겨야 돼. 때

로 주위에서 너를 욕한다 해도 '주인공, 이렇게 안되게 하는 것도 당신 아냐' 하고 매사 걸 다 거기다 맡겨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입력이 돼, 즉 말하자면 어저께 잘못했으면 입력이 돼서 몇 달 후에 나오기도 하고 몇 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유전성도 영계성도 업보성도 모두가 거기서 출발하게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면 그 입력된 나쁜 거는 다 없어져, 알았지? 그러니 거기다 다 맡기고 살아. 그래야 너도 잘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어. 알았니? 상대방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지 않아 천하아도 그런 게 입력이 되어 붙어 다니면 될 거라고 해도 될래야 될 수가 없어. 하려고 아무리 해도 뒤로 돌아서게 돼.

또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학교 과정은 마쳐야 제대로 될 수가 있지. 지금 세상이치가 그래. 장사를 해도 멋있게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냐. 장사를 해도 내가 그런 게 아니냐. 장사를 해도 내가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사는 게 아주 피곤해져. 내가 이런 소리하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지? 되는 대로 살면 사는 게 아 되지. 그렇지만 너 혼자 목욕하게 그냥 산다고 해서 평생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속 안 썩고 살 자신 있어?

앞으로 얼마나 지나면 앞날에 내가 어찌 되고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게 되겠니? 잘 생각해봐. 부모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그때는 네가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네가 세상이치를 알아야 옳은 짝을 만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제대로 자식을 둘 수 있어. 그런데 마음에 안 내킨다고 공부를 안한다면 그 모든 걸 순조롭게 하기가 어려워. 하기 싫다는 생각도 마음에 달렸거든. 마음에 서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내 그냥 마음에서 삼은 생각이 들고 뒤를 하나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 그러니까 '주인공, 싫지 않게 하고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심히 제대로 심부름을 해나가게 해' 하고 관해봐. 빛나게 살아야 한다.

### 사무치게 진실로 놓는 법

**문** 주인공에 사무치게 진실로 놓고 관하라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치게 진실로 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처절한 사연으로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의 심정인지, 평상심에서 가벼운 생각으로 무심히 놓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저의 집 위로 매일 미군 헬리콥터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 저 헬리콥터가 다른 곳으로 날아다니게 해, 너 무 시끄럽잖아." 하고 관합니다. 그런데

매일 매 시간 날아다니니까 저는 매일 매 시간 주인공에 같은 말을 합니다. 이때 놓는다는 것과 관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답**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라는 것도 거기고, 그것이 나오는 것도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들고 한 군데서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거기고, 감사하는 것도 거기고, 깨내는 것도 거기입니다. 그 세 가지만 되면은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긴박한 상황일 때도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하고 관합니다. 이런 거기에서부터, 내 본래면목에서부터 내가 형성된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본래면목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니까, 또 행동도 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악이든 선이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만 이 전체에 다 통신이 되어서 해결이 날 것은 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고 온 것도 없어지고 안고 갈 것도 없어진다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그대로 갈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당신아, 본래면목 당신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만 하고 그 한 생각을 냈을 때 그걸로써 족하고 그 생각으로만 간절해야지. 발버둥을 치고 방황하면 못 믿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달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앞을 달달하게 되는지? 나를 못 믿는 겁니다. 자기 본래면목 주인공을 못 믿는 겁니다. '야,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급작스럽게 일이 닥쳤을 때는 누가 아무리 여기에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사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하고 탁 내버릴 텐데 이걸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놔버린 자에게는 사는 도리가 있고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야 만야한 데서 나무가지가 붙을고 있는데 '너는 이거를 놔야 산다' 하고 일러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못 놓는 거야, 왜?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본래면목 그 자체를 믿는다면 이것도 무난히 놓을 수 있습니다. 무난히 놓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알게 되고, 남떠러지도 본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놓고 놔둬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내가 아니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철저히 않으면 안됩니다. 내 회생과 인내와 노력, 그런 정진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것은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맡기지 말고, 오직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지극한 마음으로 맡겨놓는 그 믿음이 사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부다뉴스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부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 018 한통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신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매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메일메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